

'사람과 하늘의 스승' 뒷바라지 발원



◇18일 남원 실상사 화엄학림 강당에서 주지 도법스님의 법문을 들은 후 사중 스님들과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지회별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화엄회 회원들.

18일 전북 남원 실상사. 이날 저녁부터 화엄학림 강당에서 열리는 '금강경 결제 제8회 논강'에 참석하려는 불자들이 경내를 가득 메운 가운데, 공양간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뒷바라지해 온 유기농 야채를 가져와 저녁공양을 준비하는 불자들이 보였다.

이들은 최근 교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금강경 결제'를 주최한 화엄

학림의 후원단체인 화엄회(회장 김정진) 회원들. 정성스럽게 공양물을 준비하는 회원들과는 별도로 나머지 회원들은 이날 점심 때부터 밥당 바닥 및 주변 청소, 불단 정리, 방석 정리, 난방시설 점검 등 손님 맞이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화엄학림 성륜 스님의 집전으로 큰방에서 진행된 예배, 천수경 독경, 석가모니불 정근은 1백여 회원

들의 일치된 열병 소리로 한마음이 느껴졌다. 화엄학림 설립 1년 후 96년부터 시작한 '사람과 하늘의 스승(天師을 키우겠다)'는 인재발사를 발원하는 기도다.

10시경 금강경 논강이 열린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자, 화엄회는 화엄학림 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제28회 철야정진을 시작한다. <자비도량참법> 참회기도에 들어가

앞서 실상사 주지 도법 스님이 법문을 통해 화엄회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한다. '95년 설립된 화엄학림이 25명의 강사급 졸업생을 배출하고 '금강경 결제'와 같은 논강을 펼칠 수 있게 된 것도 화엄회의 후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인재를 배출하지 않고선 불교의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스승을 배출하는 교육불사가 잘 이뤄지도록 행사를 갖고 전국 9개 지회도 구성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화엄학림 후원회'란 이름아래 뭉친 것은 지난 96년이다. 화엄학림이 설립된 지 1년 만에 아무 조건없이 매달 1만원의 후원회비를 모았다. 회비를 모아 화엄학림 강당과 화엄원 건물을 지었고, 대웅전 복원공사에도 참여했다. 스님들이 2001년 지리산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

회비모아 강당건립 불사에 적극 참여

매달 철야정진 등 자기공부도 열심

목 마음을 모아주시시오." 이어 해강 스님의 집전으로 참회기도와 108배 정진이 이어지자 회원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맺혔다. 학식과 덕망을 갖춘 스님들을 배출하기 위해 조용히 뒷바라지만 해온 화엄회가 식답다 '인재발사'를 발원하며 7년 동안 빠짐없이 철야정진을 해온 것은 남을 위한 기도와 자기 공부를 겸한 수행의 일환이었다. 화엄회는 2001년 11월 230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창립

행사를 갖고 전국 9개 지회도 구성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화엄학림 후원회'란 이름아래 뭉친 것은 지난 96년이다. 화엄학림이 설립된 지 1년 만에 아무 조건없이 매달 1만원의 후원회비를 모았다. 회비를 모아 화엄학림 강당과 화엄원 건물을 지었고, 대웅전 복원공사에도 참여했다. 스님들이 2001년 지리산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

며 백두대간, 낙동강, 지리산 종주 순례에 나섰을 때도 회원들은 순례를 뒤따르며 공양물 등 물품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회원들은 1천 배, 3천배 철야정진은 물론 <금강경> 등 경전공부도 열심이다. 김정진(72, 무애산) 회장은 "사찰의 건축불사를 후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의 주인이 될 훌륭한 스님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063)636-3031

실상사=김재경 기자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증엄 스님 (F)

(대만 자재공덕회 회장)

'중생구제' 서원...곳곳서 자비행

인순 대사는 간단한 스승과 제자의 예를 갖추고 증엄 스님에게 '증엄(證嚴)'이란 법명과 '해장(德璋)'이란 자(字)를 내렸다. 증엄 스님은 곧바로 입제사에서 열린 삼단대계(三壇大戒) 사미니계, 비구니계, 대승보살계를 수여하는 계단에 참석할 수 있었다.

한달 뒤 증엄 스님은 화련으로 돌아와, 한 노 거사의 보시로 보명사 뒤쪽에 소박한 목재 가옥을 지었다. 이곳에서 스님은 잠을 즐기고 소시하며 경을 외우거나 사경하며 수행했다. 때로는 연비(燃臂) 공양으로 중생구제의 서원을 염원하는 기도를 하기도 했다.

1964년 봄, 스님은 그동안의 공부를 회향하기 위해 화련 자선사에서 처음 <지장경> 강의에 나선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4명의 출가 제자가 사제의

대답하기를 "원주님 소녀가 입신을 해산길로 7~8시간 달려왔지만 의뢰비와 보증금이 없어 다시 되돌아 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증엄 스님은 "두 생명이 같은 생명인 줄 모른다 말인가? 이곳에 생명의 소중함이 과연 있던 말인가?"며 비통한 심정을 가눌 수 없었다.

출가 본래의 뜻은 명리를 떠나는 것이었지만, 돈이 없어 생명이 죽어가는 어찌구무 없는 경험을 하다보니, 스님은 "돈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금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된다. 스님은 풀린 경전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된다. "1000개의 손과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고통과 재난을 구해주듯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가진 500인이 각처에 출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처럼 중생

사찰 자급자족...보시금에 의존 안해

'자재공덕회' 조직 복지사업으로 포교

연을 처음으로 맺었다. 스님은 절에서 보시금을 바라는 인위적인 법회를 열지 않았으며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청구(淸規)를 철저히 지켰다. 제자들에게도 자급자족의 정신을 강조한 스님은 1995년 불부터 종이나 옷, 신발의 원료가 되는 꽃을 키워 팔아 사찰 재정으로 삼기도 했다.

중생구제를 향한 증엄 스님의 서원은 뜻밖의 사건을 목격하고 난 뒤에 더욱 확고해진다. 1966년 스님은 한 진료소에서 위축혈종 수술을 하게 된 제자의 부친을 찾아갔다가 병실 근처에 피가 낭자한 사람을 발견하고, 어디서 온 사람인지 궁금했다. 옆에서 한 사람이

의 이름을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500명 단위로 조직된 단체가 생활 가운데서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의 역할을 함으로써 출세간의 정신을 다시 입세간(入世間)으로 되돌린다는 이런 발상은 '성실, 정직, 믿음, 실천'을 추구하는 자재공덕회의 생명 사랑과 자비 실천의 기본구조가 되었다.

증엄 스님은 보살행의 원리인 '자비회사(慈悲喜捨)'를 사회사업의 실천이념으로 구체화시킨 선구자였다. '자'는 자신과 국제구호, '비'는 의료와 팔수기증, '희'는 문화와 지역사회사업, '사'는 교육과 환경보전사업 등으로 세분화시킨 것이다. 김재경 기자



◇지난해 7월 대만 화엄대학에서 열린 제7차 사카리아타 국제불교여성대회에서 강연하는 증엄스님.



화엄회 김태임 총무

"교육후원 가장 큰 공덕"

"열심히 수행하는 스님들의 교육불사를 후원하다 보면 절로 신심이 나 함께 공부를 안할 수가 없죠."

96년 화엄회 전신인 '화엄학림 후원회' 때부터 맡아 온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김태임(56, 복덕행) 총무는 "기회불사에는 선뜻 나서 지만, 선사나 강사 등 고승을 배출하는 불사에는 무관심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실상사 스님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지 스님부터 행자승까지 직접 시기를 두고, 재가자들과 함께 사찰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소매를 건어붙이고 나설 수밖에 없었죠." 실상사 대중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남원 및 신내지회를 중심으로 실상사 농장에서 유기농 재배도 하고 있는 김 총무는 IMF사태를 맞아 500여 회원들이 절반이나 줄어든 때가 가장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김 총무는 이제는 불자들도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수행과 인제양성에 관심을 기울일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 불교에 있어 최고의 수행법으로 여겨졌던 간화선이 위빠싸나 수행법이 보급되면서 그 전통이 흔들리고 있는 길이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간화선은 이제 한물 간 수행법으로 희망이 없고 위빠싸나만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위빠싸나가 꼭 남방 불교 수행법에만 적용되고 우리나라 같은 대승불교권에는 없는 것처럼 여기는 풍토다. 즉, 간화선이나

목조선, 그리고 열병법이나 기타 수행법들은 위빠싸나 범주에 들지 못하고 오직 남방불교권에서 유입된 사념처 수행법만이 위빠싸나인 줄로만 안다는 점이다. 위빠싸나라는 어원을 과연 우리

마음비추기

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하여야 하는가는 아직도 논의단계에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알아차린다' '관찰한다' '전체를 꿰뚫어 본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빠싸나는 간화

몸·느낌·법 모두 마음에 근본

보니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 방법도 마음 하나만을 주제로 삼아 관찰하는 법을 가르친다.

남방불교의 위빠싸나는 이미 알려진 대로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 네 근대를 관

찰해서 지혜를 얻고 깨달음 이르는 공부법이다. 이 공부법은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통일선상으로 보고 모두 관찰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해 대승불교의 공부법은 몸과 느낌과 법을 관찰하는 것은 마음 하나만 관찰되면 나머지도 다 관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대승불교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처님 당시의 뽀뽀라 비구 아이기가 보면 마음하나만을 관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본다면, 남방불교 위빠싸나는 사념처 위빠싸나가 되고, 대승불교 위빠싸나는 일념처 위빠싸나가 된다. 남방불교의 시각에서 기존의 수행 방법들에 대해 지우친 견해를 갖지만 말고 그 수행법들 속에 들어있는 위빠싸나의 원리를 찾아내고 실천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연(유마선원장)

[출강·통신] 2003학년도 제 12기 법사 양성을 위한 한국불교법사대학 신입생모집

법사 학인으로 입학하여 불교 사회적 책무성을 갖는 직분의 법사가 되도록 지도 교수합니다.

12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법사활동을 지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2003학년도 제12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구 특 전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품수와 법사증을 수여함
- 사찰·포교원 개원 및 등록시 적극 지원함
- 종단에 출가 특도시 수행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법사불교신문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 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교도소,군법당 등에 포교활동을 적극 추천함

1. 모집과정: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2. 모집학반: ① 출강반 ② 통신반
3.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 사진 3매 · 주민등록등본 1부
5. 교육기간 · 법사과정=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대법사과정=2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6. 교육장소: ① 서울 본 대학 ② 부산 학습도량
7. 원서교부 및 접수: 2003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8.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본 대학 교무처(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원서를 보내드립니다.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 110-1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지동 110-1 (경지빌딩 3층) ☎ (02)720-1836 · 733-1959 Fax. (02)737-5305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

신홍사 부설 三笑禪院개원안내

사찰 인근에 거주하면서 참선, 기도정진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삼소선원이 2003년 2월 10일부터 변각성 큰스님을 모시고 개원합니다. 함께 할 사부대중을 모집합니다.

1. 노후를 사찰에서 지내면서 실버를 설계하실 분
2. 경전, 참선, 서예, 사군자, 달마도, 다도를 즐기실 분
 - 변각성스님 매월 2, 4주 토요일 오후 4시 경전공부
 - 도건 큰스님 서예 및 달마도 개인 지도(무료)
3. 보증금 2,500만원 부터, 매월 관리비 25만원부터
4. 대 상 : 사부대중(학교 및 통근 가능) - 선착순 10명

◎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구함

■ 교통안내 : 지하철 3호선 홍제역 3번 출구 10번 마을버스 탑승(중점위치) 그랜드 힐튼호텔 뒤

서울 서대문구 홍은 3동 265-232번지 신홍사 문의처 : (02)395-1222 . 011)225-1222

漢文教育科

▶ 통신반 · 출강반 募集 ◀

1. 募集期間
 - 전기 1월 5일 ~ 2월 15일 (기간연수)
 2. 募集學科 • 漢文教育科
 3. 教育科目
 - 무량연경 (漢文本)
 - 묘법연화경 (漢文本)
 - 관. 보현보살 행법경 (漢文本)
 - 특강을 통해 모든 경전 비교연구
 4. 教育期間 • 3년 (6학기)
 - 통신반 · 출강반 동일
 5. 教育方法
 - 매주교재와 강의테이프 우송(통신반)
 - 월 1회 출석특강(통신반)
 - 출강반은 주1회 출석(대구 · 부산지역)
 6. 畢業惠澤
 - 畢業證書 수여
 - 전문 연구과정 입학자격부여(무료)
- * 자세한 입학 안내서는 청구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國際語文研究所

所長 · 哲學博士 崔光永 대구시 동구 신암 4동 276-25번지(동대구빌딩 3층) 053)952-8711 · 017)501-